

‘-고’의 접속기능과 제약

박 종 갑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3. ‘-고’ 접속문의 정형성과 용인성 |
| 2. 정형성과 용인성의 문제 | 4. 마무리 |

1. 들어가기

1.1 본고는 둘 이상의 단문이 ‘-고’에 의해 접속될 때 따르는 제약이 문법의 어느 층위에서 생기는 것인지를 따져 보려는 것이다. (1), (2), (3)을 각각 (1)’, (2)’, (3)’에서 제시되고 있는 두 단문들의 접속으로 본다면, 접속이 일어나기 전의 단문들은 아무런 문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접속문 (1), (2), (3)은 매우 어색한 것이 되고 만다.

(1)? 영애가 예쁘고 칠성이가 간다.

(1)’ ㄱ. 영애가 예쁘다.

ㄴ. 칠성이가 간다.

(2)? 훈아는 그림을 좋아하고 백호는 책을 본다.

(2)’ ㄱ. 훈아는 그림을 좋아한다.

ㄴ. 백호는 책을 본다.

(3)? 형은 등산을 좋아하고 누나는 학생이다.

(3)’ ㄱ. 형은 등산을 좋아한다.

ㄴ. 누나는 학생이다.

1.2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급은 학술논문에서 보다는 ‘대학작문’이나 ‘교양국어’ 같은 대학의 교양교재에서 몇 군데 보이고 있는데¹⁾, 그것은 대개 통

1) 교양교재편찬위원회 국어분과위원회 편, 「대학작문」(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pp.7~8, 이익섭, “한국어의 문장구조,” 「한국어와 한국문학」(대구어문연구회 편,

사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고’에 의해 병렬(접속)될 때는 병렬되는 요소는 그것들이 단어든 구(句)든 문장이든 동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1)은 선행문과 후행문의 서술어가 품사가 다르고(선행문의 서술어는 형용사, 후행문의 그것은 동사), (2)는 선·후행문의 서술어가 앞의 것은 감정동사이고 뒤의 것은 지각동사여서 동질의 것이 아니며, (3)은 선·후행문의 통사구조가, 앞의 것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고 뒤의 것은 ‘주어+(체언)서술어’의 형식으로 서로 달라, 전부 비문이라는 것이다.²⁾

2. 정형성(well-formedness)과 용인성(acceptibility)의 문제

앞의 (1), (2), (3)의 접속문이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의 구명(究明)에는 문장의 정형성과 용인성의 문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Chomsky(1977: 36~59)는 통사론(syntax), 의미론(semantics), 음운론(phonology)은 각각 구분되어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그는 화용론(pragmatics)은 문법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또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했다(Radford, 1981: 12).

2.1 정형성은 통사론이나 의미론, 음운론에서의 문제이고, 용인성은 화용론에서의 문제이다. 하나의 언어형식(linguistic form)이 정형이나 비정형(ill-formedness)이나 하는 것은 토박이화자의 직관(intuition)에 의해 판단된다.³⁾

다음의 (4), (5)는, 각각 (4)', (5)'와의 비교에서 그 비정형성이 분명해지는데, 이유는 각각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 한국어와 영어의 토박이화자들의 직관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설출판사, 1987), pp. 39~48, 교양국어교재연구회 편, 「대학국어」(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p. 67 등을 들 수 있다. 예문 (1), (2), (3)도 모두 이상의 앞선 저술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2) 김홍수(1977: 114-15)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는 ‘-고’에 의해 접속되는 문장은 분지표(branching diagram)에서의 구조형(structural configuration)이 유사하거나 문형(文型, sentence type)이 일치해야 하는데, 문제의 접속이 대칭(symmetric)적인 것일 때는 그러한 제약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비대칭(asymmetric)적인 것일 때는 다소 완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3) 정형성과 용인성의 문제에 대한 기술은 Radford(1981), 제 1장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져 있다.

(4), (5)는 통사적 비정형문이 된다.⁴⁾

(4)* 언덕 위에 아름다운 매우 집이 있다.

(5)* Jhon very Mary much loves Mary very much.

(4)' 언덕 위에 매우 아름다운 집이 있다.

(5)' Jhon loves Mary very mvch.

다음의 (6), (7)은 의미적 비정형문이고, (8), (9)는 의미적 정형문이다.

(6)! 나는 철수가 어제 결석했음을 알고 있었는데,

철수는 실제로 결석하지 않았다.

(7)! I knew Mary was ill, but it turned out that she was isn't.

(8) 나는 철수가 어제 결석했다고 생각했는데, 철수는 실제로 결석하지 않았다.

(9) I thought Mary was ill, but it turned out that she was isn, t.

(6), (7)은, 밑줄 친 ‘알다, know’가 사실성동사(factive verb)로, 보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presupposition)하는 것인데, 후행문의 내용이 그것과 배치되므로, 전체 문장의 의미구조는 모순관계를 이루게 된다.⁵⁾ (8), (9)가 의미적 정형문이 되는 것은 서술어 ‘생각하다, think’가 그러한 전제를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6), (7), (8), (9)는 통사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장의 비정형성이 통사적인 것이냐 의미적인 것이냐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의 (10)은 종래 통사적 비정형문으로 보아 왔는데, ‘himself’가 3인칭 단수남성 재귀대명사인데 비해, 그 선행사로 생각되는 ‘We’가 1인칭 복수형이기 때문이다.

(10)! We respect himself.

그러나, 통사적으로는 위 (10)의 문장이 완전하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아래 (11)에서 보듯이 ‘himself’는 타동사 ‘respect’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언어학 이론에서는 (10)을, ‘himself’가 독립적인 지시물(reference)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의미적 비정형문으로 처

4) 앞으로 통사적 비정형문은 *로, 의미적 비정형문은 !로, 화용론적으로 용인 불가능한 문장은 ?로 표시한다.

5) 국어의 경우, (6)에서는 보문소가 ‘-음’로 실현되어 불구보문을 구성하고 있고, (8)에서는 보문소가 ‘-고’로 실현되어 완형보문을 구성하고 있다는 차이가 지적된 바 있다(남기삼, 1973).

리하고 있다(Radford, 1981: 10~11).

(11) John respects himself.

음운적 비정형성은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될 수 있다. (12)를 (13)'처럼 발음하지 않고 (13)과 같이 한다면 그것은 음운론적으로 비정형적인 것이 된다. (13)과 같은 발음은 한국어 토박이화자의 음운적 정형성에 관한 직관에 배치된다. 한국어 토박이화자는 '각리산'이라는 가상적인 산에 대해서도 '[kaŋ ni san]'으로 발음하는 것을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12) 속리산

(13) [sok li san]

(13)' [soŋ ni san]

2.2 용인가능성(acceptibility)과 용인불가능성(unacceptibility)의 문제는 화용론적인 것이다. 화용론은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관계되는 배경에 대한 지식이나 개인적인 믿음(personal belief)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규칙을 다룬다.

다음의 (14)의 각 문장은 ㄱ에서 ㅅ으로 갈수록 그 내용의 기이성(oddity)이 심화되어 더욱더 용인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14)'와 비교해 보면, 통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화용론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4)ㄴ은 금붕어가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화용론적으로 전제하는데, 그러한 전제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personal beliefs about the world)과 배치되기 때문이다.⁶⁾

(14) ㄱ. ? My cat realises that I'm a lousy cook.

ㄴ. ? My goldfish "

ㄷ. ? My pet amoeba "

ㄹ. ? My frying pan "

ㅁ. ? My sincerity "

ㅂ. ? My birth "

6) (14)의 문장들은 소위 선택규칙(selectional rule)을 어긴 것들이다. 선택규칙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겠으나, (14)의 문장들이 드러내는 어색함은 언어 내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언어외적인 문제이다. (14)의 문장들이 드러내는 기이성의 정도의 차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정도 문제이다.

(14)' My uncle realises that I'm a lousy cook.

3. ‘-고’ 접속문의 정형성과 용인성

정형성/비정형성의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이고, 용인가능성/용인불가능성의 문제는 언어외적인 문제라는 점을 앞(제 2 장)에서 밝혔다. 그러면, 앞의 (1), (2), (3)의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이 정형성의 문제나 용인성의 문제나 하는 것을 따져야 할 차례다.

3.1 연결어미 ‘-고’의 의미기능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고-’ 그 자체는 단순한 ‘연결’이외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남기십, 1978)이 타당해 보인다.

둘 이상의 명제가 서로 연결되어 실현되는 데는, 그만큼 어떤 언어외적 동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의 (15)는 (15)’에 비해 그러한 연결의 동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

(15)? ㄱ.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은 수염을 자주 깎고, 한국의 가수 조용필은 노래를 잘 부른다.

ㄴ. ?담배는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마라톤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15)' ㄱ. 일본의 나카소네는 수염을 자주 깎고, 쿠바의 카스트로는 수염을 깎지 않는다.

ㄴ. 담배는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마라톤은 체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15)에서처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수염을 자주 깎는다’는 사실과 ‘한국의 가수 조용필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사실을, ‘담배가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한국의 마라톤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연결’하여 언급하는 것은 특별한 배경적 정보가 없는 한, 매우 부자연스런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15)’에서는 ‘두나라 지도자의 취향’이나 ‘건강에 대한 담배와 마라톤의 관계’ 등이 비교되는, 쉽게 떠올러지는 ‘연결’의 동기가 드러나 있다.

3.2 앞에서 제시한 (1), (2), (3)의 문장이 어색한 이유도 같은 관점에서 언급될 수 있다(16), (17), (18)로 다시 인용).

6 嶺南語文學(第14輯)

- (16)? 영애가 예쁘고, 칠성이가 간다.
 (17)? 훈아는 그림을 좋아하고, 백호는 책을 본다.
 (18)? 형은 등산을 좋아하고, 누나는 학생이다.
 (16)' 영애가 얼굴이 예쁘고, 칠성이가 영애한테 자주 갔다.
 (17)' 훈아는 그림을 좋아하고 백호는 문학책을 즐겨 본다.
 (18)' 형은 위험한 등산을 좋아하고 누나는 암전하고 소극적인 학생이다.

(16)은 앞(1.1)에서 소개한대로 선·후행문의 서술어가 각각 형용사, 동사로 서로 달라 비문으로 처리된 것이다. 그런데 (16)'는, 서술어의 품사가 (16)의 경우와 동일한데도,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것은 (16)'에서는 선행문의 내용이 후행문의 내용이 지시하는 사건의 원인처럼 생각되어, '연결'의 동기가 쉽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17)', (18)'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도 각각의 경우에 '취미생활'이나 '성격' 등이 비교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6)', (18)'에서는 각각의 선·후행문의 통사구조가(16), (18)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질적이므로, '-고'에 의한 접촉에 있어서의 그러한 제약을 서술어의 품사나 의미특성, 문장의 통사구조 등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후행문의 서술어의 의미특성이나 통사구조가 각각 다른 다음의 (19), (20)에서, (19)에 비해 (20)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은, (20)은 동일한 주어, 피한정어와 자매항과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한정사 '-도'(염선도, 1985), 부사 '잘' 등에 의해, 선·후행문의 내용이 주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개성' 등의 공통적인 화제(common topic)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서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다.

- | | |
|--------------------------|----------------------|
| (19)? 찬속이는 키가 크 <u>고</u> | 만수는 야구를 한 <u>다</u> . |
| (형용사) | (동사) |
| └──────────┘ | └──────────┘ |
| 《중주어문》 | 《타동사문》 |

- (20) 찬속이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한다.

7) 그렇다고 하여, '-고'에 '원인표시'라는 적극적인 의미기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선행문의 내용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선행문이 연결되어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는 결과, 그러한 명제내용의 성격에 기인되어 생기는 언어외적 문제이다. 선행문의 위치를 바꿔놓은 (16)'에서도 밑줄 친, 동일한 내용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데서도 '-고'가 단순한 '연결'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6)'칠성이가 영애한테 자주 갔고 영애는 얼굴이 예뻤다.

8 嶺南語文學(第14輯)

실출판사, pp. 39~48.

최현배(1955), 「우리말분」, 집고고친판, 정음사.

황병순(1986), “‘-어’와 ‘-고’의 기능에 대하여,” 「국어학 신연구」 탐출판사.

Kim, Han-Kon(1975), “Conditions on Coordination and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s,” *Language Research* 11-2.

Radford, A(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 Press.